

## I. 서론

### I-1. 연구배경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은 옛 도심을 ‘벽 없는 미술관’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됨. 조성 당시 이중섭 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서복전시관 등 4개의 미술관 및 전시관을 비롯하여 거리공연과 아트마켓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시장과 옛 도심의 상징이었던 서귀포관광극장, 시를 읽으며 걷는 칠십리 시공원, 자구리 해안, 소정방폭포 등을 산책로로 연결하여 도보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함.

○2011년 조성 이후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을 다시 활성화시켜 관광객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재설계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 I-2. 연구목적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부 목적으로, 1) 작가의 산책길 탐방객 확보 방안 및 홍보방안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2) 작가의 산책길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방안 연구 3) 작가의 산책길 내 시설물 활용방안 연구 등임.

### I-3. 개념 및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필요한 개념 및 선행연구는 세 방향으로 나뉘어 있으며, 1) 산책길 2) 문화예술시장 3) 공공미술 관련 등임.

○산책은 ‘거닐다’는 의미지만, 작가의 산책길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포함됨. 하나는 문화예술행위를 수행하는 작가가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느긋한 기분으로 한가로이 거니는 공간이 되는 반면, 작가가 만든 문화예술작품을 이동하면서 느긋한 기분으로 한가로이 감상하며 거니는 공간이 됨. 전자의 주체가 작가라면 후자의 주체는 관람객임. 한편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작가의 산책길’에 대한 정의를 ‘작가의 산책길이란 작가의 삶과 문화예술 혼이 서려 있는 문화시설을 탐방하고 체험하는 코스’로 정의함으로써 후자의 의미가 강함.

○문화예술시장은 사전적 의미로 문화예술 작품이나 서비스 등의 유통 구조가 형성되는 시장을 의미함. 다만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문화예술시장은 ‘국내외 작가의 문화예술창작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문화프로그램을 공연 하거나 체험하는 시장’을 말함. 산책길과 문화예술시장의 결합과 같은 문화예술유산 및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은 세계적인 추세임.

○공공미술(公共美術)은 대중들을 위한 미술을 뜻함. 도시 공원에 있는 조각 등이 이에 해당함. 이 개념은 1967년 영국의 존 윌렛(J. Willett)이 “Art in a City”에서 처음 사용함.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정된 장소의 설치 미술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 등을 포함함.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는 대부분 도시이며, 조각, 벽화,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포장작업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함.

#### I-4. 연구대상과 범위

- 본 연구의 물리적 대상과 범위는 작가의 산책길과 문화예술시장, 작가의 산책길 내 시설물들과 작품임. 작가의 산책길은 3개의 코스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시장에서는 아트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시설물들은 2개의 미술관, 1개의 기념관, 1개의 전시관, 유토피아 커뮤니티센터(UCC), 창작공간 등이 있음.
- 본 연구의 내용적 측면의 대상과 범위는 공급자적 측면과 수요자적 측면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운영주체, 제도, 목적사업, 재정, 공간 및 기반시설, 홍보 분야 등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점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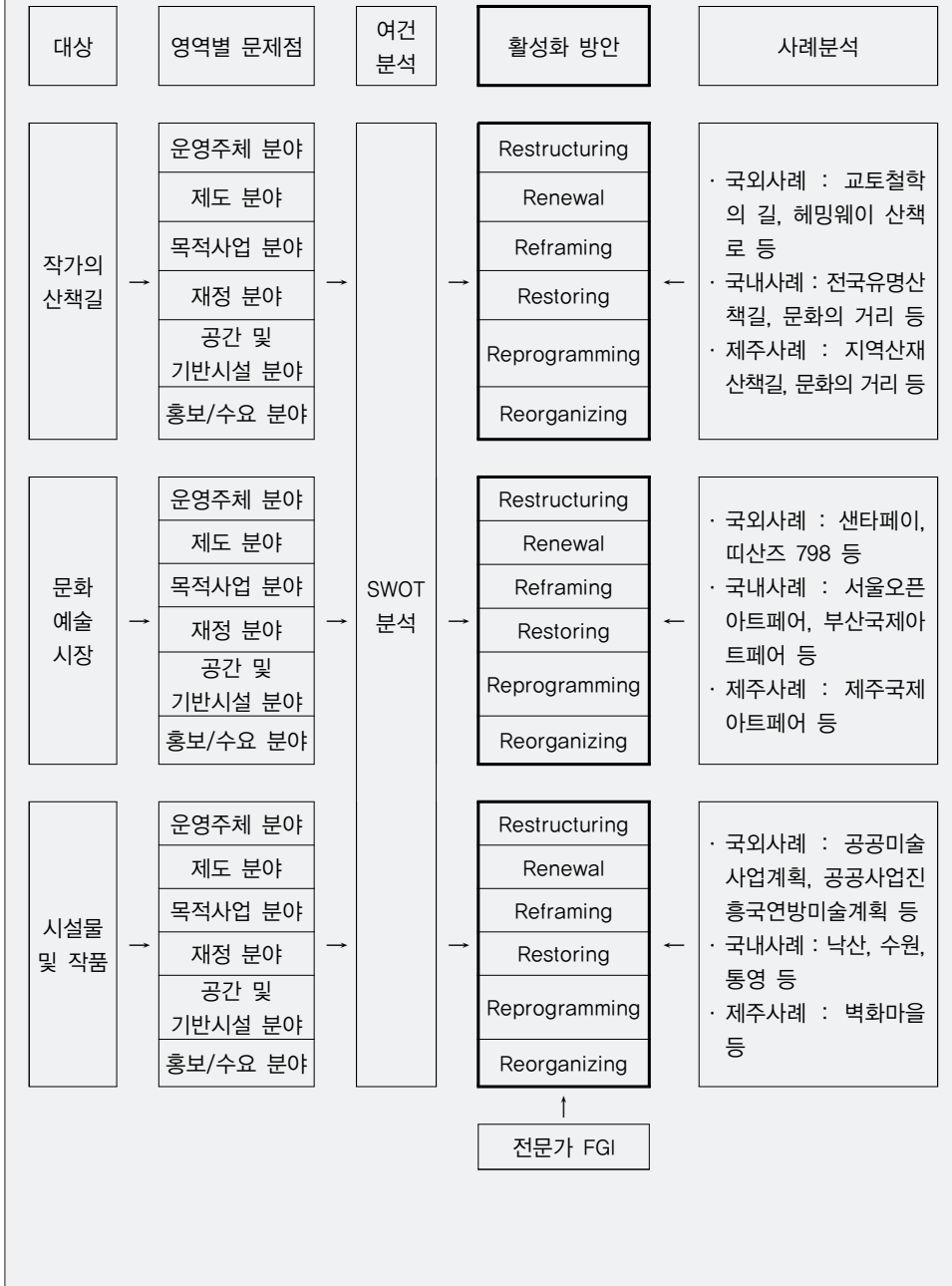
#### I-5. 연구방법론

- 본 연구는 작가의 산책길과 문화예술시장, 작가의 산책길 내 시설물들에 대한 기본 특성과 실태를 비롯하여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문헌연구, 빅데이터(Big Date) 활용, 현지조사, 전문가 FGI (Focus Group Interview), 방문객 조사, 자문회의 등으로 구성됨.

#### I-6. 분석틀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가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여건을 분석하고, 기존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 및 선진사례와 새로운 창발적 아이디어 수집을 통하여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 및 홍보방안을 마련함.

〈표 I-1〉 분석틀 모형



## Ⅱ.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관련 국내외 사례

### Ⅱ-1. 국외사례

○국외사례는 1) 작가의 산책길 2) 문화예술시장 3) 공공미술관려하여 살펴봄. 첫째 작가의 산책길과 관련하여서는 일본 교토 철학의 길과 스페인 헤밍웨이 산책로 사례 등을 살펴봄. 둘째 문화예술시장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샌타페이(Santa Fe)와 북경 따산즈(大山子)798 예술시장 사례를 살펴봄. 셋째, 공공미술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뉴딜정책 시기 공공미술사업계획(public works of art project)과 공공사업진흥국 연방미술계획을 살펴봄.

### Ⅱ-2. 국내사례

○국내사례는 1) 작가의 산책길 2) 문화예술시장 3) 공공미술관려하여 살펴봄. 첫째 작가의 산책길과 관련하여서는 전국의 유명산책길 사례를 비롯하여 전국 문화의 거리 등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문화예술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서울 오픈 아트페어 및 부산 국제아트페어의 사례 등을 살펴봄. 셋째 공공미술과 관련하여서는 낙산 이화마을 프로젝트 및 수원 행궁동마을 사례와 통영 통파랑벽화 마을 사례 등을 살펴봄.

### Ⅱ-3. 제주도사례

○제주도사례는 1) 작가의 산책길 2) 문화예술시장 3) 공공미술 관려하여 살펴봄. 첫째 작가의 산책길과 관련하여서는 올레길을 비롯하여 제주 지역에서 새롭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길들의 사례와 제주지역 문화의 거리 등을 살펴봄. 문화예술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제주 국제아트페어와 바이제주(Bye-Jeju) 등의 사례를 살펴봄. 공공미술과 관련하여서는 제주벽화마을을 비롯하여 두맹이 골목 등의 사례 등을 살펴봄.

### Ⅲ.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기원과 현황

#### Ⅲ-1. 작가의 산책길 형성과 전개

○작가의 산책길은 2011년 5월 28일 4.9km에 대하여 개설하였음. 탄생 배경은 2010년 하반기 직원으로 구성된 액션러닝팀(Action Learning Team)의 제안으로 채택한 시책사업임. 작가의 산책길은 3단계로 추진 되었음. 최초 발생은 서귀포시 내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계획의 구상과 당시 정부의 공공미술지원정책과 맞물려 1단계사업(2012년)이 추진됨.

○1단계는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통하여 공공미술작품들이 탄생됨. 당시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공모 분야는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바꾸기 : 2012마을미술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2013년 2월까지였음. 이후 초기 계획에 포함된 아트플랫폼 사업이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됨(2013년).

○작가의 산책길 잔여 구간에 대한 3단계 사업은 2014년 '2014 예술의 섬 프로젝트'로 추진되어 수행됨.

○사업추진은 외부의 제안이나 서귀포시 중장기계획 수립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행정 내부의 제안에 따라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임. 이후 관련된 공모와 맞물려 사업이 확장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Ⅲ-2. 문화예술시장 형성과 전개

○문화예술시장은 이중섭 문화의 거리 및 작가의 산책길과 함께하는 예술시장 상설화를 통하여 특화된 문화예술 공간 조성, 지역 명소화 및 문화관광상품의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개설됨.

○2013년 1월 문을 연 서귀포 문화예술시장은 이중섭 거주지 맞은 편 도로 90m 구간에 조성됨. 토·일요일 주말마다 개장됨.

### Ⅲ-3. 작가의 산책길 시설물 및 작품 설치 현황

○현재 작가의 산책길 내에 존재하는 시설물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1〉 작가의 산책길 내 존재하는 시설물

시설물명	위치	개관년도 (재개관년도)	용도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2002	미술관
소암기념관	서귀포시 소암로 15	2008	기념관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	1987	미술관
서북전시관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	2003	전시관
유토피아갤러리	서귀포시 칠십리공원 내	2012	갤러리
유토피아 커뮤니티센터(UCC)	서귀포시 중앙로 4번길 13	2012	센터
창작스튜디오	서귀포시 이중섭로 33	2008	스튜디오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이중섭로 25	1963(2015)	극장
소라의 성 북카페	서귀포시 칠십리로 214번길 17-17	1967(2017)	카페
덕판배 창작공간	서귀포시 칠십리공원 내	2012(2015)	창작공간, 미술관

○작가의 산책길 내의 작품들은 마을미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임, 이 사업은 3차례에 걸쳐 추진되면서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동일 구간이지만 사업명은 서로 다르게 불리고 있음.

〈표 Ⅲ-2〉 작가의 산책길 내 작품 설치 단계

구분	년도	사업명	설치장소	주관처	작품수
1차	2012	행복프로젝트 (유토피아로)	서귀동 일원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	40
2차	2013	기쁨두배프로젝트 (아트플랫폼)	서귀포관광극장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	4
3차	2014	예술의섬프로젝트	작가의 산책길	재)아름다운 맵	10
합계					54

○또한 설치 당시 작품들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함.

〈표 Ⅲ-3〉 작가의 산책길 내 일몰제 적용 작품 현황

일몰 기간	2012년도 작품	2013년도 작품	2014년도 작품
일몰불필요	2작품	-	-
2년~4년	8작품	-	2작품
5년~20년	23작품	1작품	3작품
반영구	7작품	3작품	5작품
합 계	40작품	4작품	10작품

※ 자료 출처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공

○현재 작가의 산책길에는 초기 54개 작품에서 현재는 43개 작품만 설치되어 있음. 11개의 작품은 일몰제 등으로 철거된 상태임.

#### IV.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현안과 문제점

##### IV-1. 운영주체 분야

○작가의 산책길과 관련하여 운영주체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두 개의 시선 유지가 필요함. 하나는 작가의 산책길과 다른 하나는 작가의 산책길 내에 존재하는 작품들에 대한 것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조례 제7조에는 도지사가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시장의 운영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관련 운영은 위탁을 받은 민간 주민협의회가 운영의 주체가 되고 있음.

○시설물들의 관리는 다양한 부서가 관계되어 있으나 소통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심적인 운영주체의 부재로 작가의 산책길과 연계성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음. 시설물들이 작가의 산책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낮음.

〈표 IV-1〉 작가의 산책길 내 시설물 운영관리 주체

시설물	운영관리주체	비고
칠십리공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샛기정공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술관 기념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미술관운영팀	
창작스튜디오/창작공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미술관운영팀	
전시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공원 내 문화재 지구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지원팀	
공원 내 미술작품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커뮤니티센터(UCC)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주민협의회	
유토피아 갤러리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서귀포관광극장	민간소유	사유지
소라의 성 북카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솔동산 문화의 거리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송산동사무소	
이중섭 거리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정방동사무소	

○현재 작가의 산책길 및 작가의 산책길 내 있는 시설물들에는 문화관광해설사와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가 공동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동 배치는 여러 측면에서 긴장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또한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와 관련하여 역할재고 문제, 안전 및 체력문제, 사회보험문제, 해설사 고령화문제, 교육 및 관리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음.

## IV-2. 제도 분야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는 목적, 용어의 정의, 탐방로 및 구역, 기능, 문화예술행사 지원, 기본계획수립,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관련 업종 육성,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주민협의회 구성 및 지원, 관람료, 매표, 관리지도 등을 담고 있음.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제3조 탐방로 및 구역, 제4조 기능, 제5조 2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3 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4 문화예술관련 업종 육성, 제6조 운영, 제9조2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회 구성 및 지원, 제10조 관람료, 제11조 관람권, 제13조 매표 및 수표, 제15조 해설사 부분 등에서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함.

○또한 다른 총돌 법규와의 관계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에 규정을 받고 있는 조례들과의 관계 정립도 필요함.

〈표 IV-2〉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관련 고찰 대상 조례들

번호	조례/사업명	재개정일	주무부서	작가의 산책길 관련하여	관련 법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0.11.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서귀포 구도심 관련	· 도시재생 활성 화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 성 및 운영 조례	2016.11.23.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 관련	-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2018.12.31.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문화정책과	지역문화관련	· 지역문화진흥법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2020.05.13.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문화정책과	지역문화관련	·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IV-3. 목적사업 분야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주 목적 사업은 ① 작가의 산  
책길 탐방을 비롯하여 ② 문화예술 작품의 전시·관람·체험·  
판매와 ③ 공연예술 및 복합예술의 공연·관람 및 체험임.

〈표 IV-3〉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목적사업 분야

목적사업 분야	세부사업
작가의 산책길 탐방	탐방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문화예술작품의 전시·관람·체험·판매	4개 미술관 및 전시관 연계사업 작가의 산책길 내 설치 미술 관리 문화예술시장 운영과 관리
공연예술 및 복합예술의 공연·관람 및 체험	서귀포 관광극장 운영과 관리 창작공간(창작스튜디오, 덕판배) 운영과 관리 유토피아 갤러리 운영 및 관리 방문객 및 주민체험

○작가의 산책길 탐방과 관련하여서는 방문객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집계 되지 못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함.

○문화예술작품의 전시, 관람, 체험,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1) 미술관 및 기념관 연계사업 2) 작가의 산책길 내 설치 미술 3) 문화예술시장 운영과 관리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첫째 미술관 및 기념관 연계사업은 이중섭 미술관 방문이 독보적으로 초기 4개의 미술관 및 기념관, 전시관을 엮어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낸다는 취지와 거리가 있음. 둘째 작가의 산책길 내 설치 미술 관리는 관리에 대한 매뉴얼(Manual)이 부족하며, 전체 작품에 대한 유의미성을 재검하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셋째 문화예술시장 운영과 관리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2, 3차 문화콘텐츠(Content)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공연예술 및 복합예술의 공연, 관람 및 체험 관련하여서는 1) 서귀포 관광극장 운영과 관리, 2) 창작공간 운영과 관리, 3) 유토피아 갤러리, 4) 방문객 및 주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음. 첫째 관광극장과 관련하여서는 서귀포 시민과 관광객 가운데 주요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여겨짐. 이러한 방향과 목적의 불명확한 성격으로 인해 공간의 특성에 맞는 공연이 기획과정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내고 있지 못함. 둘째 창작공간의 경우 현재 이중섭 미술관의 창작 스튜디오와 덕판배 미술관의 창작 공간 등이 있음. 이들 창작공간을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중섭 거리, 작가의 산책길에 놓여있는 창작스튜디오는 일반적인 목적 이외에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활용하여 작가의 산책길이나 이중섭미술관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셋째 유토피아 갤러리의 경우 코엠하우스라는 작품을 갤러리 밖 전면으로 둘러싼 작품인데, 현재 흉물이 되어 민원제기가 있으며,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철거 위기임. 넷째 방문객 및 주민체험프로그램은 2019년 신규 체험프로그램인 생태체험도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체험 프로그램 개설시 공간과 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방문객의 선호도, 혹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IV-4. 재정 분야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중요한 물적 토대로, 2012년 2월에 작성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디자인시장 중기기본계획에는 전체 18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명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음.

- 현재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의 작가의 산책길 2016년~2019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연간 예산이 2017년 이후로 3억을 조금 넘어서는 실정임.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은 지역 주민협의회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 2~3억 원 정도임.
- 미술관 및 기념관과 전시관의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낮은 편으로 통합관람권의 효과를 보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로고(Logo)상품은 8종이 있는데, 엽서, 에코백, 에코연필, 노트, 머그컵, 노리의 여행, 똥돼지, 버프 등임. 현재는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IV-5. 공감 및 기반시설 분야

- 작가의 산책길이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는 높지만 작가의 산책길이 갖는 상징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작가의 산책길과 중복되는 다른 거리 및 길의 문제로 보임. 제주에서도 올레길을 시작으로 각종 길 및 거리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주제만 달리하여 중첩되는 길들이 많음. 서귀포 작가의 산책길의 경우도 중복되는 길 및 거리가 7개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중섭 거리, 칠십리음식특화 거리, 솔동산 문화의 거리, 아랑조을 거리, 올레길, 천주교 순례길, 불교 선정의 길 등이 있음.
- 현재 작가의 산책길에서 매력 포인트 지점은 이중섭 미술관과 이중섭 거리가 핵심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식과 관련하여서는 작가의 산책길 내 표식문제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표식들이 존재함. 또한 NFC (Near Field Communication)도 기간 만료로 사

용이 무용지물임. 관리 소홀 및 부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을 방증함. 또한 흥미와 재미 요소의 부재가 나타남.

○현재 작가의 산책길에는 샛기정 공원과 칠십리 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공원 곳곳이 안전과 관련하여 시설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음. 공원관리 소홀은 작가의 산책길 관리 소홀로 바로 이어짐. 근린공원에 국내외 미술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어 생활체육공간과 미술작품 간의 연계성을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지도 중요함. 미술작품들이 공원 내 근린 시설의 하나로 보이는 배치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함.

#### IV-6. 홍보와 수요 분야

○주 이용 방문객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야 대응전략이 나옴. 그러나 현재 방문객에 대한 파악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또한 거점 공간에 대한 매력 포인트는 이중섭 미술관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

○본 연구진이 실시한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작가의 산책길 탐방 시,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체적으로는 3.6점을 보이고 있어 보통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문화예술시장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3.2점을 보이고 있어 보통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시설물들에 대한 만족도는 5점을 만점으로 기준 잡았을 때, 보통 정도의 척도를 나타내고 있음. 기당미술관과 관광극장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시설물들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그러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명백한 패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투 트랙(Two Track)이 필요한지 고찰이 필요함.

○전체적으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에 대한 만족도가 경계상에 있는 것으로 보임. 만족도가 보통 정도의 척도에 머무는 것도 있지만, 추천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아서는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V.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여건분석

### V-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방향

○본 연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이슈를 분석하여 도출한 구상으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영역 여러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 방향에 대하여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함.

○첫째, 미시적 차원에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6R 전략을 통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핵심적 방향을 제안함.

○둘째, 거시적 차원에서 작가의 산책길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시선에서 추진목표와 추진체계, 추진전략 등을 제안함.



## V-2.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SWOT분석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SWOT

내부	강점[S-strength]	약점[W-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이미지</li> <li>○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위치</li> <li>○가용 자연문화자원의 풍부</li> <li>○공간적 연계성의 강점</li> <li>○조례 등 제도적 근간의 마련</li> <li>○서귀포시민들의 자부심과 의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주체의 부재</li> <li>○조례 등 제도적 근간 미흡</li> <li>○안정적 예산 확보 미흡</li> <li>○목적사업의 수행 미흡</li> <li>○기반 시설의 지속적 관리 부재</li> <li>○홍보의 체계성 미흡</li> </ul>
외부	기회[O-opportunity]	위협[T-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정부의 문화자치 정책</li> <li>○제주도 문화예술의 섬 조성</li> <li>○서귀포시 법정문화도시 선정</li> <li>○감염병으로 제주 여행 증가 예상</li> <li>○문화관광 관심 고조</li> <li>○예술의 대중성 부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레길 등 걷기 열풍 소멸</li> <li>○감염병의 주기적 발생 예상</li> <li>○전국적 유사 길 및 거리 증가</li> <li>○타 지역 유사 콘텐츠 개발 및 활용</li> <li>○타 지역 법정문화도시 선정</li> <li>○항공기 등 교통편의 감소</li> </ul>

## V-3.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방문객 이동 경로 분석

○제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지난 2년여 간의 주요 이동 경로와 거점을 살펴보면, 해안을 끼고 있는 도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서귀포시로의 이동도 일주도로 등 해안선을 끼고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작가의 산책길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이중섭 거리와 솔동산, 등이 주요 이동 거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귀포 방문객들이 이중섭거리에서 솔동산으로 이어지는 주 경로를 보이고 있음. 그 외 작가의 산책길 및 관련 거점과는 연결되지 않고 있음.

○제주 올레 열풍이 소멸되고, 방문객 수가 줄어들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작가의 산책길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Ⅵ.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과 활성화 방안

### Ⅵ-1. 운영주체 분야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과 활성화는 작가의 산책길에는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까지도 고려하여 통합적 시선과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 문제 해결 등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해 보임.
- 조직은 중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작가의 산책길 운영팀을 두고 향후 중기계획에 따른 사전 준비 업무와 현재 위탁중인 문화예술시장 및 관광극장 운영, 작가의 산책길 관리 업무를 담당함.
- 사무국의 설치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서 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무국의 설치에 출자출연기관으로 할 것인지, 민간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 혹은 사단법인 형태로 할 것인지에 따라 조직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이는 차후 수행단계에서 논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나 작가의 산책길이 공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주체들이 공조적인 점을 감안하면 공기관의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주민협의회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위원 구성도 송산동과 정방동 주민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산책길이 관통하는 서귀포 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작가의 산책길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탐방안내와

거점공간 설명이라는 두 개의 축에 대한 재고와 함께 문화관광 해설사와의 역할 구분은 반드시 필요함.

## Ⅵ-2. 제도 분야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는 3차례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 다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하나는 현실과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을 새롭게 모색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조례에 새롭게 삽입할 필요가 있음.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들을 공공미술로 전환하였을 때, 공공미술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있음.
-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에 대한 직무 내용, 활동지원내용, 교육 및 평가 내용 등이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중요함.
- 작가의 산책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도시재생관련 조례, 문화거리 관련 조례 등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 외에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타 조례와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Ⅵ-3. 목적사업 분야

- 현행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목적사업에 대한 재고와 함께 정체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바뀐 문화 환경 수용 여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임.
- 작가의 산책길 프로그램의 새로운 개발과 관련하여 신규 스토리

발굴 및 스토리텔링 강화 탐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문화예술 작품의 전시, 관람, 체험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4개 미술관 및 전시관을 연계하는 특화사업 외에 작품들의 공공미술작품으로의 관리체계 수립, 문화예술시장의 대전환, 관광극장 운영의 대전환, 실질적 창작공간의 운영 등이 모색되어야 함.

#### Ⅵ-4. 재정 분야

- 재정 분야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나눌 수 있음. 공공 분야는 세금으로 확보되는 재정이지만, 민간 분야는 세외 수익으로 볼 수 있음.
-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재정기반 설계 또한 단계별로 계획될 필요가 있으며, 도비만이 아닌 국비사업을 모색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문화정책은 문화자치에 기반 하는 것으로 문화자치 관련 사업비 지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국비 발굴사업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함.
- 세외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수익사업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 세외 수입은 기업 지원과 상품 판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지역사업을 지원하는 공기업들의 협력 및 지원 사업과 대기업들과의 협력 및 지원 사업 등도 모색할 수 있음.
- 입장료의 재정비와 지역화폐 및 바우처(Voucher) 활용 등을 모색하여 볼 수 있음. 현재의 통합관람권은 무용지물로, 지역경제로 환원될 수 있도록 바우처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관광극장의 경우 사유지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문제 및 지역소음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음. 따라서 비단 작가의 산책길이 아니더라도 서귀포 문화자원에 대한 신탁제도(Trust)를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VI-5. 공감 및 기반시설 분야

- 공간 및 기반시설의 문제는 작가의 산책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식의 공유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앞서 밝혔던 정체성의 문제, 다른 유사한 길과의 중복성의 문제, 문화예술시장문제, 초기 구상에서 작가의 삶을 조망하는 문제 등을 공간의 재분할과 재조합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음.
- 현재 발생하는 문제를 유형화시키고 공간의 재구조화를 비롯한 대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대안은 작가의 산책길 코스 재설계 및 블록 설정, 뷰포인트 및 매력 장소 개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안전 시스템 보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VI-6. 홍보 분야

- 홍보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대응전략을 구사할 때 그 효과가 명백함. 현재 작가의 산책길은 홍보 대상인 탐방객 등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부재함. 따라서 1차적으로는 홍보대상인 탐방객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임. 현재는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들의 구두(口頭) 보고로 통계가 구축되고 있지만, NFC 혹은 스탬프(Stamp)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홍보 방식은 온오프라인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홍보방법과 내용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홍보를 위한 핵심적 스토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상의 홍보 외에도 주기적인 캠페인 기간이 필요함.
- 작가의 산책길과 작가의 작품들을 온라인(유튜브, 소셜네트워크, 키오스크 등)에서 소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오프라인에서는 문화맵 중심의 홍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홍보를 위한 스토리 구축 및 스토리 북(Story book) 가공이 매우 중요함.

- 또한 작가의 산책길과 문화예술시장을 비롯하여 ‘문화의 도시 서귀포’를 상징할 수 있는 질 높은 BI(Brand Identity) 구성이 필요함.

## **VII.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및 활성화 추진체계**

### **VII-1. 추진목표**

- 현재 서귀포에 머물렀던 옛 작가들의 작품은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등에서 전시되고 있어 지붕 있는 갤러리인 반면, 마을미술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설치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은 야외에 설치되어 지붕 없는 갤러리를 이루고 있음. 특히 그 공간들은 옛 작가들이 거닐던 공간으로 신진 작가들의 설치된 작품들과 중첩되어 있어, 이 두 개의 목표를 상위에서 잡아주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칠십리 공원의 시비(詩碑), 솔동산 문화의 거리 사업 등으로 생겨난 공공미술작품들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나아가 작가의 산책길은 문화도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계 설정 및 역할 구분도 명확히 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VII-2. 추진체계**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Ⅷ-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단계별 추진 체계

분야	지원 및 결합단체	결합목표	추진체계
시민사회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환경운동연합</li> <li>• 제주올레 등</li> </ul>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 장의 지속적 활 성화	가칭) 작가의 산 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 사무국
문화예술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문화예술재단</li> <li>•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li> <li>•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li> <li>• 소암기념관</li> <li>• 이중섭미술관</li> <li>• 기당미술관</li> <li>• 서복전시관</li> <li>• 제주 아트페어</li> <li>• 한국예총제주 및 서귀포 지회 등</li> </ul>		
지자체/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의회</li> <li>• 제주특별자치도</li> <li>• 서귀포시 등</li> </ul>		
학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연구원</li> <li>• 제주학회</li> <li>• 제주대학교 등</li> </ul>		
주민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 원도심 활성화와 작가의 산책길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협의회 등</li> </ul>		
전문가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집단 등</li> </ul>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신문</li> <li>• 지역방송 등</li> </ul>		

### Ⅶ-3. 추진전략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선에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전략이 필요함.

〈표 Ⅶ-2〉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단계별 추진 전략

구분 \ 단계	1단계(2020~2021)	2단계(2021~2022)	3단계(2023년 이후)
	활성화 기초단계-제도적 기반의 점검	활성화 안정단계-실질적 사업의 모색	새로운 차원의 발전단계-문화도시와의 연계
주체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사무국	작가의 산책길 사무국 및 소통 네트워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의 산책길 조직 및 사무국 설치</li> <li>· 작가의 산책길 운영위원회 구성</li> <li>· 작가의 산책길 조례 개정</li> <li>· 정체성 확립 및 목적 사업의 점검</li> <li>· 시설 및 작품의 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의 산책길 사무국의 안정화</li> <li>· 작가의 산책길 재정확보의 안정화</li> <li>· 홍보시스템의 체계적 구축</li> <li>·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역할, 기능, 교육 체계화</li> <li>· 프로그램의 새로운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시장의 새로운 전환</li> <li>· 서귀포시의 다른 문화 사업과 소통/협력 구축</li> <li>· 문화도시와의 연계사업 발굴</li> <li>· 정기적인 기본 계획 수립</li> <li>·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li> </ul>



## VIII. 결론 및 정책 제언

### VIII-1. 결론

○본 연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시설 및 작품 등 세 가지 측면에서 6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전체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표 8-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현안과 문제점

분야	문제점
운영주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의 불명확</li> <li>· 운영위원회의 부재</li> <li>· 주민협의회 활동의 한계</li> <li>·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역할 및 관리의 미약</li> <li>· 작가의 산책길 시설물 운영관리 주체의 혼재</li> </ul>
제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와 현실과의 괴리 (제3조, 4조, 5조, 6조, 9조 등)</li> <li>·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 정립</li> </ul>
목적사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방관련 코스와 방문객 유인책의 부족</li> <li>·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li> <li>· 문화예술작품 중심으로 길이 아닌 거점 중심이 됨.</li> <li>· 미술관 및 기념관 특화 사업 및 연계성의 부재</li> <li>· 미술작품 관리의 체계성 부족</li> <li>· 문화예술시장의 목적과 다른 운영</li> <li>· 관광극장의 미 매입</li> <li>· 창작 공간의 비활성화</li> </ul>
재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기본계획과 예산 확보의 미 이행</li> <li>· 예산확보의 낮은 안정성</li> <li>· 제한된 민간위탁사업 운영</li> <li>· 낮은[무료]관람료와 통합관람권의 무용지물</li> <li>· 수익사업의 부재(연계 상품 판매 미흡)</li> </ul>

분야	문제점
공간 및 기반시설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의 산책길 상징성 및 상징공간의 부재</li> <li>· 각종 길과의 중복</li> <li>· 표식의 혼란 및 주변관리문제</li> </ul>
홍보/수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한 탐방객 통계의 부재로 대응전략 부재</li> <li>· 체계적 홍보의 부재 및 잘못된 홍보 자료 이용</li> <li>· 작가의 산책길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만족도</li> <li>· 평가시스템의 부재</li> </ul>

○이외에도 작가의 산책길은 작품관리, 다른 장소와의 연계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문제로 통합적 시선이 필요함. 또한 변화하는 여건을 수용하여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계획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 VIII-2. 정책제언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을 둘러싼 현재의 여건을 분석하여 전략을 구상해보면, 첫째 문화도시와의 연계하여 확장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걷기 열풍의 소멸과 작가의 산책길 지속을 위한 전체 리뉴얼(Renewal)이 필요함. 셋째, 조례 개정을 통한 작품들의 공공미술관리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며, 넷째,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만의 독특함 형성으로 찾고 싶은 공간으로 전환을 해야 함. 따라서 우선 현재 6개 분야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후 확장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표 8-2〉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분야	정책 제언
운영주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국의 설치</li> <li>· 운영위원회의 구성</li> <li>· 주민협의회 기능 전환</li> <li>·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역할 및 관리방안 모색</li> </ul>
제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조례의 불 필요한 부분 개정</li> <li>· 직간접 관련 조례와의 관계 정립</li> </ul>
목적사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정체성 점검</li> <li>· 변화된 문화 환경 수용</li> <li>· 스토리 발굴 및 스토리 텔링 강화</li> <li>· 미술관 및 기념관 연계 사업 특화</li> <li>· 문화예술시장의 대전환 모색</li> <li>· 관광극장 신탁을 통한 공연예술 강화</li> <li>· 창작 공간의 활성화</li> </ul>
재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국의 설치로 안정적 예산 확보</li> <li>· 세외수익 구조의 다원화</li> <li>· 바우처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환원</li> <li>· 문화예술 주민신탁 제도 모색</li> </ul>
공간 및 기반시설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관리 및 안전 관련 주체들 간 소통체계 구축</li> <li>· 작가의 산책길 상징 공간 및 상징성 확보</li> <li>· 각종 중복 길의 해소와 블록(Block)지정 방안 모색</li> </ul>
홍보/수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li> <li>· 온오프라인(오감, 문화맵 중심)</li> <li>· BI 및 핵심 스토리 구축</li> <li>·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li> </ul>